

# 연변 5 곳, 전국 현역관광 발전 감측 명단에

## 고품질 발전으로 더욱 흡인력 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 목적지로 거듭나



일전 2025 (제8회) 중국현역관광 발전 감측사업의 단계적 성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길시, 훈춘시, 돈화시, 화룡시, 안도현이 풍부한 관광자원, 활발한 관광경제와 실속있는 정부 추진 사업으로 중국 현역관광 발전 감측 강현, 강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년간 연변은 시종 '관광흥주' 발전전략을 견지했는바 '피서레저, 빙설관광'을 구동으로 관광산업사슬을

부단히 완벽히 하여 지역 특색과 문화 내포가 있는 일련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연길시는 류행과 미식, 민속과 관광촬영을 특색으로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었다.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 지리적 위치에 의탁해 '한눈에 삼국을 볼 수 있는' 등 특색관광 대상을 출시했다. 돈화시는 한족, 만족, 조선족 민속문화와 역사문화, 불교문화 등을 깊이 발굴해 관광객들이 질은

지역풍정을 느끼도록 했다. 화룡시는 풍부한 빙설자원에 의탁해 빙설관광을 발전시키고 '로리커 림해설원' 관광 브랜드를 구축했다. 안도현은 기이한 상고대 경관과 광천수 표류 체험을 특색으로 사계절 관광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내세웠다.

이 밖에 연변은 선후로 여러가지 관광행사를 적극 개최하면서 연길빙설관광축제, 훈춘삼국새해기복, 돈화설맞이장터, 화룡림해횡단, 안도빙설카니발 등 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정경, 새로운 놀이법을 혁신하는 데 주력해 젊은 관광객을 이끌고 관광객들의 체험감을 풍부하게 하여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더욱 흡인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관광 목적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연변조간



# 연길공항 중경행 항로 두갈래 새로 증가

3월 30일부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2025년 여름 시즌 항로 계획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연길-천진-중경 항로, 연길-제남-중경 항로를 새로 증가하기로 했다.

연길-천진-중경 항로는 천진항공이 운항하는데 기종은 에어버스 320이며 매일 운항한다. 연길-제남-중경 항공편 번호는 SC8813 이고 시간은 15:55-21:20이며 중경-제남-연길 항공편 번호는 SC8814 이고 시간은 9:35-14:55이다.

GS6585 이고 시간은 8:25-14:00이다.

연길-제남-중경 항로는 산동항공이 운항하는데 기종은 보잉 738이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운항한다. 연길-제남-중경 항공편 번호는 SC8813 이고 시간은 15:55-21:20이며 중경-제남-연길 항공편 번호는 SC8814 이고 시간은 9:35-14:55이다.

/ 김영화기자

# 장백산공항 특색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구축

최근 장백산공항은 자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분야 협력을 전개하고 장춘중의약대학부속병원 및 백산병원과 협조하여 특색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이색적인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 기간 장백산공항은 급급 기능을 기초로 중의약 서비스를 증설하여 고객들에게 안마, 침구 등 특색 항목을 제공, 여행객들의 피로와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장춘중의약대학부속병원과 백산병원은 공항을 리용해 중의약 전문문화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이런 협력은 중의약 문화와 인삼산업 선전을 공항의 일상 운영에 융합시켜 공항 서비스의 문화 내포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전파와 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세 상호 보완, 협동 발전의 협력 리념을 충분히 펼쳐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

정월대보름날, 장백산공항은 두 병원과 연합하여 고객터미널에서 '장백인삼향 대보름 빙설로 동글이 지다' 주제 행사를 개최하여 중의문화와 민항 서비스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했다.

향후 장백산공항은 지속적으로 문화 건설 분야를 심화하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삼향(三香)' 공항을 건설하여 여행객들에게 더욱 우수하고 친근하며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길림 인삼산업이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특색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 길림일보

# 2025 중국훈춘철새감상축제 3월 중순 개최



훈춘시 경신진정부와 연변촬영가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 중국훈춘철새감상축제가 3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철새 보호·조화 공생'을 주제로 하는 이번 철새감상축제는 훈춘시 경신진 조양촌 반산리·우주선문화관광기지에 주회장을 설치하고 통산호회포리수리촬영기지에 분회장을 설치한다. 활동 기간 가동식, 조류 감상 촬영, 자원봉사자 철새 먹이 주기, 농민 철새수호대 순찰 등 공익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경신습지는 주요 수역 면적이 5,800

헥타르가 넘는데 두루미, 백로, 백조, 기러기, 중화호사비오리 등 199종의 이동성 물새가 있는 이곳은 이동성 물새의 주요 집중 분포 지역으로서 해마다 전국 각 지역의 많은 관광객과 촬영애호가들을 흡인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더욱 추진하고 대외의 야생 조류 보호 의식을 높이며 생태문명 리념을 전파하고 훈춘의 '아름다운 습지·철새들의 천국' 생태관광자원을 진일보 전시해 농업문화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 훈춘시당위 선전부

# 중국 술의 도시 - 로주



타강(滄江)과 장강이 만나는 이곳, 바로 봄에는 녹음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경치가 요염하며 가을은 열매가 탐스럽고 겨울은 경치가 수려한 아름다운 로주이다. 로주는 강남의 수려함과 술의 호방함이 어우러져 로주 고유의 기묘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2천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주는 과거에 강양(江陽)이라 불렸다. 서한 때인 기원전 151년 이곳에 강양현을 두면서 로주의 도시 역사가 시작되었다.

로주는 중원에서 서남의 소수민족 지역으로 통하는 '서남의 요지(要地)'이자 역대로 사천과 운남, 귀주 3성의 물자 집산지이며 사천 남부와 서남 지역의 경제중심지였다. 로주는 또한 유명한 군사고성이며 근대 혁명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자 술문화를 보유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2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는 로주에 많은 문화유산과 고적을 남겼다. 보은탑(報恩塔)은 당나라 건축의 예술 특징을 보유하고 춘추사(春秋祠)는 청나라 조각예술의 정화를 대표하며 룡뇌교(龍腦橋)는 정교한 석각예술과 웅장한 조형, 기이한 구조로 내외에 이름이 자자하다.

로주에서 동쪽으로 30키로미터 되는 거리에는 또 로로주성(老瀾酒城)이라 불리는 남송신비성도 있다. 로주에서는 또 유명한 옛 석교인 룡뇌교도 명물이다. 중국에서 보기 드문 명나라 때 석교인 룡뇌교는 1378년-1398년에 축조된, 석교와 석각을 한몸에 모은 교량이다.

큰 돌로 교각을 만들고 교각 사이에는 두텁고 넓은 석판을 깔았으며 홍수 방류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란간을 세우지 않았다. 교각이 새긴 커다란 룡과 다양한 짐승 조각이 푸른 청사를 배경으로 맑은 물에 거꾸로 비껴 비경이다.

/ 본지종합

산 좋고 물 맑은 로주는 예로부터 많은 문인묵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당나라 시인 두보와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 송나라 서예가 황정견, 송나라 문학가 범성대, 송나라 시인 룡유, 명나라 시인 양신, 청나라 작가 황윤곡 등이 모두 로주의 아름다운 산수에 매료되어 작품을 남겼다.

오늘날 담양기술에 남아있는 '두보석'과 황정견의 서예작품들인 <옥섬>, <졸계>, 양신이 쓴 글 <금운봉>, 황윤곡의 시비 <룡마담> 등은 그들이 로주에 남긴 흔적들이다.

산과 물과 바위와 숲과 동굴과 샘물이 어우러진 로주에서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숲이 무성하며 시내물이 맑은 사천 최대의 원시림인 황형원시림과 사원이 즐비한 로주의 명산 방산(方山), 기이한 산봉우리와 바위, 협곡과 폭포, 숲과 온천을 거느린 천선동(天仙洞), 아름다운 산수와 정교한 석각이 조화를 이루는 옥섬산(玉蟾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내외에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중국 술의 도시인 로주는 농향형 대곡주(大曲酒)의 발원지 중 하나이다. 로주대곡주는 맛이 순하고 향이 좋으며 맛이 오래간다. 로주대곡주중의 하나인 로주로교특곡(瀾酒老窖特曲)은 국가급 명주에 선정됐다.

명나라 때 로주에서는 벌써 10여 개의 양주교지(釀酒窖池)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중에 있다. 그중 4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 40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주대곡로교지는 중국에서 건설 년대가 가장 이르고 연속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첫 지'라 불린다.

/ 국제방송

# '영화와 함께하는 중국 여행' 성도서 선보여

일전 국가영화국과 중앙방송총국이 주최한 '영화와 함께하는 중국 여행' 문화관광 체험 행사가 사천성 성도에서 열렸다. 이날 미국, 로씨야, 에스파냐 등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과 사천에서 재학중인 외국 유학생들이 영화 관람, 문화 체험,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형태로 사천의 문화를 체험했다.

행사에 참가한 귀빈들은 영화 <나타 2>를 함께 관람하며 영화의 놀라운 시각적 효과와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줄거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영화 속에 담긴 풍부한 사천 문화 요소를 통해 '파족(巴蜀)'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미국 관광객 제이슨 바틀렛은 중국 신화 이야기에 큰 관심이 있다면서 <나타 2>는 중국 신화 이야기를 소재로 중국 전통 미학과 현대 애니메이션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사람들을 감탄케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영화와 함께하는 중국 여행' 활동을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의 다도 체험, 중국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인 천국 <변검(變臉)> 및 삼성퇴(三星堆) 박물관 관람 등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를 깊이있게 체험



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중국 여행' 행사는 현재 전세계에서 약 100회의 홍보 행사를 개최했으며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상해, 천진, 청도, 항주 등 여러 도시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러 팀의 해외 관광객

을 맞이했다.

3월 1일 기준으로 <나타 2>의 루적 박스오피스 수익은 이미 141억 6,000만원을 돌파하여 전세계 영화력사상 박스오피스 순위 7위에 올랐다. 중국 영화가 해외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와 함께하

는 중국 여행' 행사는 '영화+관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영화 속의 자연경관과 인문풍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본지종합